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5 년 2 학기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대학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제출일	2026 년 2 월 14 일	이 름	안태용
소 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I. 교환 파견 동기

오랜 시간 같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며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내왔지만,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와 익숙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의미 있었지만, 스스로를 다른 환경에 놓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이유를 넘어, 익숙함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더 넓은 세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고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교환학생 지원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한층 더 확장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파견 대학과 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요소는 영어권 국가 여부와 도시 규모였습니다. 영어 사용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언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고 싶었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큰 도시를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치안, 물가, 전반적인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밴쿠버가 균형 잡힌 선택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북미 스포츠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밴쿠버와 UB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밴쿠버는 흔히 'Raincouver'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비가 자주 오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을 이후에는 비가 비교적 잦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장마처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내렸다가 그치는 소나기 형태가 많아 생각보다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름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다가 흐린 날이 조금씩 많아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쾌적한 기후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과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바다, 산, 공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도시 생활과 자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UBC는 밴쿠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안이 좋고 학교가 하나의 마을일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캠퍼스 내부에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학교를 다니는 버스도 굉장히 많아 밴쿠버 시내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한국 국적의 경우 캐나다는 6개월 이하 체류 시 학생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서 전자여행허가(eTA)를 통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학기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Study Permit 없이 eTA 만으로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숙소 종류와 지원 방법

교환학생의 경우 교내 기숙사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UBC로 교환을 간 분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2-3 분 정도는 기숙사를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렌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내에 기숙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교환학생은 Walter Gage Residence와 Fairview Crescen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alter Gage Residence 는 아파트형 기숙사로 강의동, bus loop 과 비교적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방은 1인 1실에 6명씩 거실과 부엌,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건물 내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로비층에는 탁구대, 무인 편의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세탁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 자체 행사도 자주 열리는 편이라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는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여 Gage 를 선택하였는데 운이 좋게 높은 층의 오션뷰 방향 방을 배정받아 일상적으로 석양을 볼 수 있었고 좋은 룸메이트들을 만나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Fairview Crescent 는 단독주택형 구조로, 한 주택에 5~6명이 거주하고 주택들이 모여 하나의 작은 마을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간이 비교적 넓고 주택 형태에서 오는 생활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강의동과의 거리가 비교적 먼 편이며, Wi-Fi 공유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접근성은 Gage 보다 낮지만, 다른 형태의 주거 환경을 경험해보고자 한다면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

학비의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별도로 UBC 에 학비를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지원 시 소정의 신청비를 납부하였고, 합격 후 출국 전 약 1,000 캐나다 달러를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현지 도착 후 약 3,000 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은 U-Pass 와 iMED(의료보험) 비용을 필수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은 약 500 캐나다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U-Pass 는 밴쿠버 내 버스와 SkyTrain 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교로부터 수강신청 관련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UBC 의 경우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희망 과목을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 측에서 이를 바탕으로 시간표를 배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인기 과목들의 경우 신청하더라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어 지망을 할 때 우선순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강 후 약 2주간은 수강 정정 기간이 있어, 자리가 발생할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기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들에 참여해보고 가장 흥미 있고 관심있는 수업들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수강 취소는 수강 취소 기간 전까지 시간표 앱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건축학과 학생으로 전공 과목은 학점 대체가 쉽지 않아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총 세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1)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Context: Vancouver and its Region

이 과목은 밴쿠버 및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수업으로 교환을 온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건축물이나 도시 사례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을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없었으며 대신 일련의 과제들을 하면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밴쿠버 내 건축물을 선정하여 답사한 뒤, 이를 드로잉과 분석을 통해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전시하였습니다. 별도로 매주 읽기 과제가 주어졌는데 과제 자체는 가벼우나 리딩의 양과 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2) Measured Architectural Drawing

이 과목은 건축 드로잉과 제도의 기초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도면 작업을 컴퓨터 기반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손을 활용한 드로잉 작업을 경험해보고자 선택하였습니다.

수업은 간단한 이론 설명과 함께 드로잉 기법과 원리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과제를 핀업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자주 마련되었습니다. 학기 전반에 걸쳐 일상 스케치 과제가 있었고, 총 다섯 차례의 주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건축 수업 특성상 과제 강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시간 투자가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3) Observing the Earth from Space

이 과목은 대형 강의 형식의 교양 수업으로, 천문 및 지구 관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비교적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 추천받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영상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평가 방식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심이었습니다. 시험 대비는 단기간 학습을 통해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Introduction to Wine Science 과목도 신청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수업은 와인의 생산 과정과 과학적 특성을 배우며 실제로 시음을 병행하는 수업으로 UBC 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수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강 정정 기간에 수강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다른 수업과 시간이 겹쳐 최종적으로 수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3. 학습 장소 및 방법

수강한 과목 특성상 시험보다는 과제 비중이 높았고, UBC의 경우 주간 단위 과제가 자주 주어지는 편이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집중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공간은 Peter A. Allard School of Law 건물 도서관이었습니다. 비교적 조용하고 학습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장시간 과제 작업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Irving K. Barber Learning Centre는 가장 큰 도서관들 중 하나로 유일하게 밤 12시까지 운영되어 야간에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두 건물 모두 기숙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밤을 새워 과제를 해야 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기숙사 로비에 위치한 스터디룸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수업 초반에 함께 과제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구를 사귀면 이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내용을 공유받거나 과제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리딩 과제의 경우 모든 단어를 완벽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속독하며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습니다. UBC 수업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주간 단위의 자잘한 과제가 많은 구조이므로, 학교 수업과 과제 관리 시스템인 Canvas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밴쿠버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물건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 정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물품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면 편리합니다. 저는 갈 때 생필품을 최대한 가져갔었는데 수저, 지퍼백, 세면·세안·화장 도구 등 기본 생활용품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Walter Gage 기숙사의 경우 겨울에는 쌀쌀한 편인데 히터가 약한 편이어서 전기장판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영복과 방수가 가능한 바람막이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UBC에는 Aquatic Centre가 있고, 바다와 계곡 등 자연환경이 가까워 수영할 기회가 잦아 수영복을 입을 일이 많고, 가을에 소나기가 잦고 날씨가 쌀쌀한 경우가 많아 방수 기능이 있는 외투가 실용적입니다. 하이킹에 관심이 있다면 하이킹화도 준비해가면 유용합니다.

현지에서의 물품 구매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Costco 카드로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Costco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학생의 경우 1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Amazon Prime을 통해 온라인 주문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숙사로 직접 배송이 가능해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기류와 가구들의 경우에는 IKEA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배달 구매를 하였습니다.

2. 식사 및 현지 물가

캐나다의 전반적인 물가는 한국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갔던 터라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는 직접 요리를 하였는데, 학교 근처의 Save-On-Foods와 No Frills에서 주로 장을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계란, 우유, 쌀, 과일 등을 제공하는 Food Ban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식의 경우에는 일부는 한국에서 준비해갔으며, 캠퍼스 내 H-Mart가 잘 되어 있어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외식을 할 때는 캠퍼스 내에서는 Big Way Hot Pot, Steve's Poké Bar, Chipotle, McDonald's 등을 자주 이용하였고, 친구들과는 Browns Crafthouse와 The Gallery Patio & Lounge 등의 펍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카페는 Tim Hortons가 한국과 비교하여 굉장히 저렴하고 Timbits를 좋아해서 커피와 간식을 사러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캠퍼스 밖은 주로 Kitsilano 지역이나 Downtown Vancouver를 방문하였습니다. Kitsilano에서는 Little Bird Dim Sum, Raisu, Ellipsis를 자주 이용하였고, Downtown에서는 Joe Fortes Seafood & Chop House, Saku, Nemesis Coffee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밴쿠버는 Happy Hour를 운영하는 식당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식사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편의시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캠퍼스 내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의료: 의료의 경우 한 학기 교환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iMED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해당 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병원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은행: 캠퍼스 내에 여러 은행 지점이 위치해 있어 비교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송금이 가능한 e-transfer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생활 전반에 편리합니다. 특히 학생 대상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건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Royal Bank of Canada(RBC)를 이용하였으며, 당시 학생 프로모션으로 에어팟을 제공받았습니다.

교통: 밴쿠버는 대중 교통이 서울처럼 잘되어 있어 돌아다니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중 교통은 사전에 안내 받은 U-Pass 를 활용하면 됩니다. 우선 학교 Bookstore 나 지하철역에서 Compass Card 를 구매한 뒤, 온라인으로 본인의 U-Pass 를 해당 카드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밴쿠버 내 버스, SkyTrain, SeaBus 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U-Pass 는 매월 인터넷을 통해 갱신이 필요하므로, 기간 내 등록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다른 이동 수단으로는 밴쿠버의 카셰어링 서비스인 Evo Car Share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UBC 캠퍼스는 Evo 주차 가능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차량 이용과 반납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하이킹이나 근교 여행, 대형 마트 방문 시 함께 종종 이용하였습니다.

통신: 통신의 경우 학기 초에 여러 통신사들이 학생 요금제를 홍보하며 부스를 운영합니다. 저는 출국 전 미리 eSIM 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 학생 요금제가 더 저렴했던 기억이 있어 Term 1 에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UBC 에 가서 통신사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 학교 시설 및 활동

UBC 는 교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인 UBC Nest 는 카페, 식사 공간, 공부 공간, 동아리방, 클럽, 펍 등 다양한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생은 UBC Aquatic Centre 와 아이스링크인 Doug Mitchell Thunderbird Sports Centre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스케이트화 대여료 약 5CAD), 특히 Aquatic Centre 의 온수풀과 사우나 시설은 겨울에 이용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UBC Botanical Garden, Wreck Beach, Museum of Anthropology at UBC 등 다양한 공간들은 여가 시간에 방문하기 좋습니다. 또한 Gage 기숙사 바로 앞에 2025 년 여름 완공된 Recreation Centre North(Rec North) 에는 러닝 트랙과 헬스 기구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캠퍼스 내 골프 연습장과 골프장 역시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저렴하여 종종 이용하였습니다.

UBC 와 밴쿠버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정말 많아 SNS 나 친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녀온 Term 1 기준으로는 미식축구 홈 경기 날 진행되는 Homecoming Day 가 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종목(아이스하키, 농구, 배구)들의 학교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반에는 캠퍼스 전역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Club Fair 를 통해 여러 동아리를 접하고 체험해볼 수 있고 캠퍼스 인근 바다에서 팀을 이루어 카누 레이스를 진행하는 Day of the Long Boat 행사가 개최됩니다.(Term 2 에는 다른 형태의 유사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NHL 팀인 Vancouver Canucks 경기의 경우 학교 행사는 아니지만 Student Rush 라고 해서 경기가 임박한 티켓들을 학생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어 세 차례 직관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북미는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진심인 지역이어서 10 월에는 할로윈 관련 행사가, 그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관련 행사들이 학교 내외로 정말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Varsity Outdoor Club(VOC)에 가입하였습니다. VOC 는 근교 산으로 하이킹, 클라이밍, 캠핑 등을 가는 아웃도어 동아리로 UBC 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가입 후에는 동아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게시되는 활동 공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식이며, 인기가 많아 수시로 확인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 난이도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자연경관이 정말 좋아 활동 후의 만족감이 컸습니다. 겨울에는 스노슈잉(snowshoeing) 활동도 진행되는데, 스노슈를 착용하고 눈 덮인 산을 걸어다니는 경험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인 동아리로는 AKCSE 와 SPEC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정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리엔테이션 등에 참석하며 한인 학생들을 만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

교환학생 모임의 경우 출국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갔었는데, 현지에서 행사나 친구들을 통해 건너건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총 약 24 명 정도로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생활 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여행이나 모임 등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을 떠나기 전까지는 쫓기듯 생활해왔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4 개월은 예상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만큼 정말 알차게 지냈고, 그 안에서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값진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UBC는 캠퍼스 규모가 매우 크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학업 외의 시간도 풍부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어, 교환을 고려한다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활동적인 사람이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맞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환을 통해 익숙한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는 한 번쯤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 협력 본부에 감사드립니다.